

재정심의 안건 절반이 '행사·축제' 하천변 불법이용행위 '수두룩'

제주 첫 전수조사... 경작·농자재 적치·불법 가설 건축물 등 713건 적발

최근 17개월간 817건 중 행사·축제 368건... 전체의 45% 부정적 판정 31건 중 28건 행사성 사업... 활동지원·건축 등 제주 행사·축제경비 비율 전국 최고... '유사·중복 검토해야'

제주도 재정 심의대에 오르는 안건 중 절반 가까이 행사·축제 관련 사업이고 부정적 판정의 90%도 행사·축제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7개월간 심의한 안건 817건 중 행사·축제 관련 사업이 368건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공공기관 대행사업 250건, 지방재정 투자심사 130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위원회 심의 결과는 적정 542건, 조건부 178건, 재검토 51건, 부정적 31건 등으로 부정적 판정을 받은 31건 중 28건이 행사·축제 관련 사업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적 판정을 받은 28건 중 22

건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지역 단체들의 활동지원·역량강화·선진지 견학 등이며 그 외 6건은 사업 필요성 부족, 사업계획 부정적 등의 사유였다. 특히 한림읍 읍승격 기념식은 69주년 행사에 이어 70주년 행사도 잇따라 부정적 판정을 받았다. 재검토 판정을 받은 ▷오페라페스티벌 ▷칠십리아의공원장 기획공연 ▷크루즈 해녀공연 ▷연동 음악회 등은 한 달 뒤 재상정돼 '사업비 축소'를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의 'FY2024 지방재정분석'에 따르면 제주도의 행사·축제경비 비율은 0.65%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으며 2위 세종(0.35%)의 1.9배, 전국 평균(0.38%)의 1.7배 수준으로 3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제주도는

행정시 예산이 도 회계에 포함되는 단층제로 비율이 높게 잡히는 측면이 있지만 같은 단층제인 세종과 비교해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심의 과정에서 같은 취지의 지적이 나왔다.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를 담당하는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9월 회의에서 "당일 상정 안건의 60% 가까이 축제, 포럼 등 행사성 사업"이라며 "제주는 세출결산액 기준 가장 많은 행사·축제경비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주제와 연관성이 낮은 프로그램, 유사·중복성이 존재하는 사업이 많아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제주도의 재정 운영을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자문·심의 기구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및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역할 대행, 재정관리보고서를 심의한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박천수 행정부지사 일행이 지난 3월 20일 중정관리대상지역인 광령천(속칭 월대천)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 제주도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계곡·하천 구역에서의 불법 이용행위에 대한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천명한 가운데, 제주에서도 첫 전수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양 행정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 하천구역 내 불법이용행위 단속건은 제주시 289건, 서귀포시 424건 등 713건이다. 그동안 연간 10건 안팎의 불법 이용 신고접수에서 이 대통령 발원 이후 첫 전수조

사가 이뤄지면서 불법 이용 사례 적발건수가 크게 늘었다.

위반 내용은 대체적으로 하천구역 내 경작이나 농자재 적치, 컨테이너 등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 등이다. 제주시의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현황은 불법 경작(비닐하우스) 22건, 가설건축물 57건, 적치물·가시설물 등 기타 184건 등이다. 서귀포시는 "정확한 불법행위 여부 등을 이달 말까지 최종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백낙기기자 haru@ihalla.com

성산 신평·삼달1리 어촌생활권 플랫폼 조성 해수부 농산어촌개발사업 선정... 5년간 85억 투입

서귀포시는 성산 신평리와 삼달1리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2027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어촌분야)'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신평리와 삼달1리는 지역 고유의 해녀 문화와 천혜의 제주 자연경관을 연계한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을 인정받아 최종 사업자로 낙점됐다. 이에 시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사업비 85억원을 투입해 '삶·일·쉼이 순환하는 신평·

삼달 어촌생활권 플랫폼 조성'이라는 비전으로 어촌마을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에 나선다.

사업은 전체 비전에 맞춰 기초생활기반 확충(행복한 삶터 구성), 지역소득 증대(함께 일하는 일터 조성), 지역역량 강화(건강한 쉼터 조성)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기초생활기반 확충은 '15분 어촌 특화 생활·복지 통합서비스망 구축'을 통해 어촌지역 소멸에 적극 대응하고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어촌마을 스테이션 조성, 해녀바탕 어촌쉼터 조성 등이 주요 사업이다.

지역소득 증대는 '1차·3차 융복합 자립형 로컬 경제 생태계 실현'을 목표로 지역 특성사업을 창출하고 어촌 경제를 활성화한다. 주요 사업은 어명야랑 위케이션 타운, 제주힐링타운 조성, 특산물 저장·유통거점 등이다.

지역역량 강화는 '단절을 극복하는 보행 친화적 치유·여가 공간 조성'을 통해 어촌의 미래 발전 기반을 다지는 것으로 맞춤형 교육, 전문자 컨설팅 등이 주요 골자다. 백낙기기자 haru@ihalla.com

서귀포시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 근로자 151명 채용

서귀포시는 자원순환 사회 조성을 선도하고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하반기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 일자리 사업 근로자를 공개 채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채용 규모는 151명으로 분야별로 재활용도움센터 청결지킴이 3명, 클린하우스 요일별배출제도우미 148명이다. 지원 자격은 공개채용 공고일 기준 만 55세 이상으로 취

업 취약계층은 우선 선발 대상이다. 보수는 제주형 생활임금 지급 1만2110원이 적용되며 월급제로 지급된다.

원서 접수는 11일부터 18일까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로 이뤄진다. 백낙기기자

은퇴 공직자들, 마을 찾아 무료 민원 상담 제주도행정동우회, 마을행정사 상담센터 본격 운영

행정사로 활동하는 공직 은퇴자들이 각종 민원 업무로 고민하는 마을을 찾아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주특별자치도행정동우회(회장 한석대)는 2026년 행정동우회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시범운영에 이어 '마을행정사 상담센터 운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마을행정사 상담센터'는 각종 민원업무에 대해서 행정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로 행정업무 및 서류 작성 등에 대한 상담 등을 마을단위로 현장을 찾아 지원하는 행정서비스이다. 운영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이며 읍·면장이 추천한 25개 마을에 대해 협의된 방문 일정

에 따라 현장에서 대면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소를 둔 도민과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마을행정사 상담센터 운영을 희망하는 마을 현장을 방문해 대면상담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마을행정사에게 전화 연락 또는 전자우편으로 비대면 상담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마을행정사 사무소 방문상담 또는 마을행정사가 신청인의 사업장 등을 방문해 상담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주민 접근성의 한계 극복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상담센터 홈페이지도 구축했다. 위영석기자

제주도서관 '오일파스텔' 강좌 오는 16일부터 참가 신청

제주도서관이 오일파스텔 그리기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성인 대상 문화강좌를 운영한다.

이번 강좌는 정희선 오일파스텔 강사가 지도를 맡아 기초 드로잉, 문지르기, 먼 채우기, 색지 활용 등 다양한 표현 기법을 단계적으로 안내한다. 강좌는 이달 23일부터 8월 11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된다. 당일 오전 10시부터 제주도 전 농로에 있는 놀레올레 활동실에서 모집 인원은 성인 12명이며, 지역주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제주도교육청 공공도서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하면 된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제주 최초 청각학박사학위 취득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이학박사(청각학)

정확한 청력검사 전문 보청기 상담

보청기 상담은 청각학 전문가에게 맡기십시오

보청기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없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멍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

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이면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분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분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대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이덱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덱스의 센소그램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와이덱스 보청기

이 제품은 '영롱기'가 '사용성'의 주안점과 '사용방법'을 잘 알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사전심의 심의번호 2020-GN180079

와이덱스보청기 강동우 청각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 755.1005

원장 강동우 박사

장학 협력 교

산학 협력 청

전문 어재

언어 재활

수사수사

제주시청
CGV
광양사거리